

말다툼 중 ‘사기꾼’이라 한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



현대차그룹, 한-태도서국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최영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왼쪽·외교부 차관보)과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 의전 차량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SKT, AI 스피커 긴급구조 사례 500건 돌파
SK텔레콤은 AI(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 기반의 '긴급 SOS' 서비스와 연계된 긴급 구조 사례가 누적 5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SKT의 AI 돌봄 서비스는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긴급 구조는 물론 정보 전달·일정 관리·인지능력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SKT



KT, 고객 초청 '키즈랜드 그라운드 캠핑' 진행
KT가 6일부터 7일까지 수원 KT위즈파크에 KT 고객 60가 족을 초청해 '키즈랜드 그라운드 캠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키즈랜드 캠핑'은 자녀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KT 고객들을 위해 마련한 고객 만족 프로그램으로, 이번 '그라운드 캠핑'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T



하나금융그룹-CTBC Bank, 글로벌 사업 MOU
하나금융그룹은 대만의 중국신탁상업은행(CTBC Bank)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오른쪽)이 모리스 리 CTBC은행 회장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유한킴벌리, 창경궁 수목·녹지 복원 추진
유한킴벌리는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울곡로 창경궁 권역의 수목 및 녹지 복원에 동참한다. 유한킴벌리는 창경궁 권역에 적합한 공결숲 복원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유한킴벌리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창경궁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친구에게 무심코 "이 사기꾼아, 빌려준 돈 좀 쥐"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화가나 '사기꾼'이라 한마디 말한 것일 뿐인데,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일까?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인식 가능한 상황이면 족하고 그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들의 현실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특정인이면 인원의 많고 적

음을 묻지 않으며, 다수인이면 그다수인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인지를 묻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8265 판결).
이에 따르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할 때 주변에 단 1명만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의해 '사기꾼'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게 되고, 그러한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

립되지 않게 된다(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
본 사안의 경우 대화 당사자들 주변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은 친구의 친한 지인이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라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 17237 판결).
따라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단순

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추상적 가치 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본 사안 '사기꾼'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말다툼 도중 흥분해 순간적으로 화가나 '사기꾼'이라 한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등).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돼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삼성전자, 유럽 최대 항구축제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함부르크 개항축제'서 영상 상영 공항 등 독일 전역에서 부산 홍보

삼성전자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유럽 축제에 힘을 더했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 최대 항구 축제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개항 축제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 축제로 꼽힌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함부르크 개항축제에서 삼성전자가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모습.

특히 올해에는 부산시가 주빈도시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부산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현지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지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축제 기간 행사장 공

식 무대 대형 스크린으로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 삼성전자 제품 광고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스마트싱스 기반 기기간 연결성과 함께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 강점을 강조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독일 전역의 공항과 주요 도심에서 제품 광고에 부산엑스포 응원 문구를 넣어 유치 활동을 알리고 있다. 또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등 주요 행사에서 부산엑스포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김재용 기자 juk@

이마트, '건강한 숲 만들기' 팔 걷어

'포레스트 투모로우' 캠페인 참여 사업기획, 기부금 조성 등 담당

이마트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건강한 숲 만들기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4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동부지방산림청, 미래숲과 함께 '숲 환경 개선 및 산림복지 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레스트 투모로우' 캠페인으로 명명한 이번 협약에서 이마트는 사업 기획 및 브랜딩과 홍보, 임직



지난 4일 동해시 산불피해지역에서 이마트 임직원들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이마트

원 봉사활동과 기부금 조성 등을 담당한다. 이마트 임직원들은 같은 날 지난

해 산불 피해지역인 강원도 동해시를 찾아 숲 복원을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마트는 산불 피해 지역인 동해시 괴란동에 약 4000평 규모의 부지에 총 36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식수는 양봉협회와 협업해 사라져가는 꿀벌을 불러들이기 위한 밀원수인 아카시아나무 3000그루와 헛개나무 600그루를 선정했다.
이마트는 하반기에 산림복지진흥원과 협업해 이마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림 인식 개선 교육과 산림정화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산림 복지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건설 '가정의 달' 이벤트 마련

롯데건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내달까지 서울 잠원동 본사를 비롯해 전 현장 임직원 및 파트너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출한 시간대인 오후 3~4시에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를 새참으로 제공하는 '든든한 간식'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12일까지 사내 프로그램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대환 기자 kdh@

SK매직, 정수기 등 구독 사업 박차

송혜교 모델 발탁... 신규광고 론칭
SK매직이 배우 송혜교를 모델로 한 신규 광고를 선보인다.
7일 SK매직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로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송혜교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생활구독 사업 확대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측은 정수기, 매트리스, 음식물처리기 3가지 소재의 캠페인을 IPTV, OTT(Over The Top) 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음
▲김영록씨 별세, 지형씨(위크온 시뮬레이션 이사) 부친상, 이병성(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이사)·이성환씨(로하스 코리아 대표) 장인상=7일, 신춘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일. ☎ 02-2227-7500